

## 매그루더 주한미군 사령관 대화록

## "5.16혁명의 당위성 설파"

5.16혁명 직후 김종필 중령은 '혁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한미군 사령관(유엔군사령관) 매그루더 대장을 직접 만나 5.16혁명의 시대적 당위성을 설파說破했다. 세 차례(5.19~5.25)의 면담 후 마침내 미국은 혁명을 인정하고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 제1차 면담

- 1961. 5.19 미8군사령관실

- 매그루더 사령관, 멜로이 대장(후임 사령관), 김종필 중령

△ 매그루더 : (김 중령과 인사를 교환하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육중한 몸집에 뒷짐을 지고 성난 호랑이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나는 (5.16군사혁명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건 분명히 '마이어협정' 위반이다. 5.16 이전 상태로 군부대를 복귀시켜야 한다.

※'마이어협정'은 6.25전쟁시 한미 간 체결한, 한국군을 유엔군사령관 지휘 하에 둔다는 협정임.

△ JP : 마이어협정 위반이라 했는데, 왜 내 지휘 하에 있는 부대를 마음대로 끌고나와 혁명을 했느냐는 뜻으로 이해한다. 사령관이 마이어협정을 고집하신다면 좋다. 우리 요구도 들어주어야 한다. 혁명을 먼저 인정해 주시오.

△매: 그것은 둘째 문제다. 귀하들은 나의 권한을 무시했고 작전지휘권을 문란케 했다. 쿠데타군을 즉시 원대 복귀시키시오.

△ JP : 그러니까 혁명이 아닌가. 혁명을 할 때 자기 사령관한테 미리 찾아가서 "당신이 지휘하는 부대를 인솔하여 몇 월 몇 일 날에 혁명을 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하고 혁명하는 경우가 있나?

△매: 나의 군 지휘권을 침해한 사실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 JP : 나는 사령관이 만나자고 해서 여기 왔는데 무조건 원상복귀만 주장하면 내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도 없고, 이런 분위기 하에서는 대화가 될 수 없다. (가려는 듯이 일어섰다.)

△ 멜로이 대장 : (일어서는 김 중령의 옷을 끌어당기며) 우리는 아직 본론에 들어가지 않았다. 앉으시오.

△ JP : ('이들이 나를 시험해 보느구나.' 생각하며, 못 이기는 척 자리에 앉으면서) 사령관께서 저렇게 화가 나 계시니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나는 중령이고 사령관은 대장인데 처음부터 일방적이고 위협적으로 나오는데 무슨 대화가 될 수 있나. 대화를 하겠다면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시기 바란다.

△매: (그 때서야 자리에 앉으면서) 왜 혁명이 필요했소? 말씀해 보시오.

△ JP : 사령관께서 며칠간 보셨다시피 온 국민과 절대다수의 군인들도 이 혁명을 지지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젊은 장교들도 처자식이 있는 몸이다. 나라가 존망위기存亡危機에 처해 있기에 우리들이 일어났다. 우리가 혁명을 일으킨 배경은,

첫째,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침몰한다. 4.19 이전 자유당 독재정부를 보면서 군인들은 울분을 느낀 사람이 많이 있다.

둘째, 3.15 부정선거도 상당히 큰 불만을 남겼으며, 젊은 군인들에게 자극제가 되었다.

셋째, 4.19가 일어나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허사虛事였다. 무질서와 방종放縱이 심했다.

넷째, 사회혼란은 가중되고 학생들은 판문점으로 가서 북한과 회의를 하자고 하면서 매일같이 데모를 했다.

다섯째, 그 가운데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들이 반미 '양키고 홈'을 외치고 있는데, 순진한 학생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

여섯째, 자유당 독재정권이 부정부패했기 때문에 군이 일  
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민주당 정부도 재벌과 결탁하고 또  
자유당 부패분자들과 결탁하고 있다.

일곱째, 군인 중에도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이 많이 있다.  
더욱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 한, 부하들이 따  
르지 않는다.

여덟째, 사회의 모든 면이 정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매: 그러면 귀하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날에  
대한 청사진은 무엇인가?

△JP: 우리는 절대빈곤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 우리 농촌  
은 해마다 보릿고개가 되면 굶주리고 있다. 우리는 국민들  
의 굶주림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외국자본을 끌어다 공장  
을 세우고 기술을 가르쳐 수출을 하도록 할 생각이다. 국민  
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우선 자신감을 갖도록 해  
야 한다. 공업화를 추진하며 농업화와 병행해서 산업을 활  
성화하겠다. 국민이 잘살 수 있게 되면 민주화를 달성하며,  
그 다음 복지국가로 갈 것이다.

이러는 동안 미국은 우리를 적극 도와주어야 하며, 경제정  
책에 우선 지원을 바란다. 지금까지 원조해 주던 입는 것,  
먹는 것 위주에서 벗어나 공장을 세우고 일을 할 수 있는 시  
설재를 도와주기 바란다.

우리는 자본과 기술을 도입키 위해 일본과 하루빨리 외교  
관계를 트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으면 미국의 태  
평양 방위에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며, 자유국가의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매: 잘 알았다. 오늘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내고 다시 연락하겠다.

## 제2차 면담

- 1961. 5.20 미 8군사령관실

- 매그루더 대장, 멜로이 대장,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JP: 어제는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다. 오늘은

매그루더 사령관께서 혁명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타협  
점을 제시해 주셔야겠다.

△매: 나는 현지 군사령관으로서 권한과 지휘권 회복이 중  
요하며, 미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추후 발표할 것이다.

※ 이날의 대화는 전일前日의 분위기와는 달리 양측 입  
장을 토대로,

① 미군은 5.16혁명을 인정한다.

② 전방부대를 빨리 원대 복귀시킨다. 단, 그 부대를 복귀  
시키기 전에 수도경비사령부를 신설하고 혁명위원회 직속  
하에 둔다.

③ 지금부터 군 주요 인사는 사전 협의한다.

④ 부대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유엔군사령부의 동의를 받  
는다.

⑤ 혁명 자체를 인정하므로 이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  
지 않는다.

등의 5개항을 합의하고, 추후 박정희 장군과 매그루더 사  
령관이 만나 합의사항을 확인한 후 외교적 절차를 밟아 서  
울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 제3차 면담

- 1961. 5.25 미 8군사령관실

- 매그루더 대장, 멜로이 대장,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JP: 혁명이 일어났을 때 진정한 목적을 매그루더 장군  
에게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해 오해가 있었다. 나는 현직에  
서 강제전역 당할 때도 사령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거사계획이 탄로 날 것이란 판단에 도달했다. 먼저 우리가  
별인 정군운동의 배경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첫째, 귀하는 한국군 고급 장성들과 매우 친밀했지만, 이들  
은 하급 장교들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분  
들이었다.

둘째, 4월 혁명 이후 육군에서는 군부를 숙정肅正해야 한다  
는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이 공산화와 쿠데타를 막  
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했다. 육군 내부에는 상호 반목



매그루더 주한미군사령관과 박정희부위원장과 이임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하는 많은 파벌들이 있었다. 우리 하급 장교들은 고급 장성들의 부패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이번 혁명에 2백50명의 장교와 3천5백 명의 사병들이 참여했다. 이들의 일념은 나라를 구하고 부패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부정축재를 하면서 나라를 방관해온 정치인들이다.

우리는 혁명 이후 정부를 민간인들에게 이양移讓할 것이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목적이 매그루더 사령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믿는다. 우리와 매그루더 사령관 사이에는 깊은 오해가 있다. 이런 오해를 불식拂拭하고자 한다.

△매 : 신정부가 공포한 목표에 대해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방법이 다르다. 이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젊은이와 늙은이의 차이일 것이다. 우리들의 의견 차이는 속도에 있다. 귀하의 방법은 좀 성급하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전쟁 당시 훌륭한 통솔력을 발휘했던 선배장교들을 잃게 된다. 새로 등장한 장교들은 깨끗하기는 하겠지만 전투 지휘경험이 적다. 나는 군인이다. 북으로부터의 침략이나 국내 공산세력의 전복顛覆활동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나의 임무이다. 이것을 알면 내가 취한 모든 행동을 이해할 것이다.

혁명군이 나의 이런 방어임무를 위태롭게 한 예를 들겠다. 첫째, 그들은 나의 동의 없이 나의 작전통제권 하에 있는 부대들을 출동시켰다. 둘째, 그들은 지휘관에게 불복하고 혁명군에게 충성하는 장교단을 포섭하였다. 셋째, 그들은 나의 동의 없이 고급 장성들을 해임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혁명군이 나의 한국 방어능력을 회복시켜 준다면 그 범위 안에서 혁명군에 반대하지 않고 신정부와 기꺼이 협조하겠다.

△JP : 만사萬事는 귀하가 혁명과 신정부를 승인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나는 이번 혁명으로 미국 사람들의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의 독립을 도왔고 물질과 생명을 바쳤다. 혁명과 장교들은 미국의 각종 학교에 유학하여 민주주의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혁명은 미국의 신뢰도를 높여 주면 주었지 손상시킨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는 미국이 이번 혁명을 자랑스럽게 여길 날이 있을 것이다.

※ 제3차 면담 다음날 다음과 같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유엔군사령관에게 모든 작전지휘권을 복귀시켰음을 자茲에 성명하며, 유엔군 총사령관은 공산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위함에 있어서만 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

〈2〉 유엔군 총사령관은 현재 서울 시내에서 근무 중인 제1해병여단 및 제6군단 포병단의 원대 복귀를 지시하였다. 이는 전에 수행하던 전선방어 군사력을 복귀시키기 위함이다.

〈3〉 유엔군 총사령관은 제30사단, 제33사단, 제1공수전투단 및 전방부대로부터 추가적인 5개 헌병중대를 국가재건최고회의 통제 하에 둔다.

1961년 5월 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장 도 영  
유엔군 총사령관 매그루더